

## 『도덕경』의 논증 구조 분석

— 윌리엄스·콜롬의 모형을 중심으로

이 종 상\* · 이 동 아\*\*

### [초 록]

2,500여 년 전에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구분되며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5,100여 자, 모두 한자로 만들어진 책이다. 노자의 핵심 철학은 한나라 이후부터 제왕의 통치술이라고 알려져 왔다. 이후에 여러 학자에 의해서 『도덕경』은 통치자를 위한 텍스트로 인식되었고, 그 독자는 통치자이며, 통치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자는 『도덕경』을 집필하였다는 것이다.

『도덕경』의 집필 목적이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이라면, 근거가 있는 주장, 즉 논증 형식으로 되어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경』의 문체는 단순히 나열식이라기보다는 모든 장이 일정한 논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도덕경』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즉, 증거가 수반된 주장으로 구성된

\* 제1저자, 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동양학과 박사

주제어: 『도덕경』, 제왕학, 설득 논리, 윌리엄스·콜롬의 모형, 논증 구조 분석  
*Tao Te Ching, Imperial Studies, Persuasive Logic, Williams & Colomb Model, Argument Structure Analysis*

것으로 보고, 그 논증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덕경』을 이해·해석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한 논증의 구조는 윌리엄스·콜럼의 모형이다.

『도덕경』 총 81장 중에 근거-이유-주장-전제와 같이 4개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장은 9개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를 고려할 경우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유-주장-전제와 같이 3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장은 51개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8가지 유형이 있다. 근거-이유-주장으로 구성된 장은 15개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까지 고려하면 5가지가 있다. 또한, 하나의 전제에 2개씩의 이유와 주장을 나타내는 장도 2개가 있고, 하나의 근거에 2개씩의 이유와 주장을 나타내는 장도 1개가 있다. 3개의 근거와 3개의 이유에 1개의 주장이 제시된 장도 1개가 있고, 기타 4개의 유형은 7개의 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논증 구조들 가운데서 유형별로 5개의 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논증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 해석상에 오류가 있다 생각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논증 구조에 의한 『도덕경』의 해석 결과와 기존의 분석 방법인 논증 방식, 변증법 등을 이용한 분석 중에 서로 공통되는 부분인 13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른 분석 방법보다 논증 구조 분석 방법이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1. 서 론

2,500여 년 전에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나뉘고,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필본<sup>1)</sup>을 기준으로 볼

1) 본 논문은 樓宇烈, 『王弼集校釋』, 臺北: 華正書局, 1992에 기재된 원문을 사용함.

때 ‘道(도)’자로 시작하여 ‘不爭(부쟁)’자로 끝난다. 판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5,100여 자, 모두 한자로 만들어진 책이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번역자의 지식 활용에 대한 깊이 때문에 동일한 판본의 『도덕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노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일괄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자의 집필의도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그들 중 김상철, 박원재, 김시천, 안성재 등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최고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侯王, 大者)의 지도력과 권력 사용에 관한 책으로, 일차적인 독자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도덕경』을 통치자의 텍스트로 보는 견해이다. 필자도 이 견해를 따라 『도덕경』은 한편으로는 제왕의 지도력과 권력 사용, 즉 통치술을 위한 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논증을 활용하여 통치자를 설득하기 위한 책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노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여 통치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덕경』을 집필했다면, 그 설득의 수단으로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형태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논증의 범위는 근거-이유-주장-전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어떤 주장이 이성적으로 수용할만하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서술하였다. 이때 사용한 논증의 구조는 윌리엄스·콜럼의 모형이다. 윌리엄스·콜럼의 모형은 근거·이유·주장·전제·반론과 수용이다.

주장(claim)은 상대나 청자가 어떠한 제시에 대해서 수용하기를 바라는 논증의 최종 목적지이며, 이유로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 이유(reason)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인데, 근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이다. 근거(evidence)는 이유를 뒷받

침하는 것이며, 전제(warrant)는 이유와 주장을 이어 주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반론수용과 반박(acknowledgement and response)은 논증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논증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반론수용과 반박은 적용하지 않았다. 왜냐면, 반론수용과 반박은 저자가 독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미리 상상해서 그 반론들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덕경』과 같이 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예상되는 독자들의 반론을 수용하고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노자가 『도덕경』을 썼다고 알려진 2,500여 년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증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설득을 위한 논증은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각 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도덕경』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괄되게 이해하고, 풀이하기 위해서는 각 장을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스·콜럼의 논증 모형을 적용하여 81장을 대상으로 각각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도덕경』의 저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도덕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논증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도덕경』 81장을 대상으로 논증 분석하여 각 장을 논증 구조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1개의 장을 선택하여 논증 구조를 설명하였다. 또한, 서로 공통으로 제시한 『도덕경』 13장을 대상으로 논증 구조 분석과 논증 방식, 변증법, 등을 이용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다른 학자

들의 『도덕경』에 대한 풀이나 해석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시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지적재산을 물려준 노자의 참뜻을 살피고, 그의 유산에 대해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할 수단으로 논증 구조 분석이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도덕경』의 저술 목적과 구조적 이해

### 2.1. 『도덕경』의 저술 목적

『도덕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인 텍스트인가는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漢書』, 『藝文志』 이래 『도덕경』은 ‘君人南面之術’(임금이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제왕의 통치술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저술의 구체적인 목적은 해석하는 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경』이 누구를 위해 쓰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몇몇 학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聖人, 侯王, 大者)의 리더십과 권력 사용에 관한 책이라고 보았다.<sup>2)</sup> 박원재는 『도덕경』은 제왕의 통치술로 통치자를 상대로 자기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직접적으로 당시의 통치자인 후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속에는 인간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일정 부분 필연적으로 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3)</sup> 또한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누가 천하를 다스릴

2) 김상철(2001), 『노자 제대로 읽기』, 씨앗을 뿌리는 사람, p. 13.

3) 박원재(2004), 「성인과 백성—노자의 수양론의 두 측면」, 『중국철학』 12, 중국철

것인가?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격언들의 모음집이라고 하였다.<sup>4)</sup> 통치자를 청자와 독자로 상정한, 『도덕경』은 이른바 통치자의 텍스트라는 것이다. 성인은 이상적 통치자로서 도(道)의 집행자이자 도의 주체라고 하였으며, 후왕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 혹은 도의 모범에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도덕경』의 독자이자 도덕의 실행이 요구되는 모방자라고 하였다.<sup>5)</sup>

도(道)는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 즉 성현들의 통치 이념이고, 『도덕경』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지도자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며, 『도덕경』의 집필 의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알리려는 이해와 설득의 수사학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통치자가 되기 위한 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의 책이라고 보았다.<sup>6)</sup> 『도덕경』의 집필 목적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최고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 제왕의 리더십과 권력 사용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도덕경』은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상정하고 상대방을 이해와 설득하려는 논증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저자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협의의 논증 방식을 취하는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2.2. 『도덕경』의 구조 이해

『도덕경』을 일정한 방법을 가지고 전체 문장구조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려는 작업은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를 연대순으로 간단

학회, p. 7.

4) 김시천(2012), 「노자와 제왕의 도—노자의 ‘전설’과 『노자』 텍스트에 대한 재검토」, 『동양철학연구』 69, 동양철학연구회, p. 113.

5) 김시천(2012), p. 117.

6) 안성재(2014), 「노자, 그 치유의 수사학—도경 1-37장을 중심으로」, 『수사학』 20, 한국수사학회, p. 83.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충열은 3장과 38장을 대상으로 ‘起承轉結’(기승전결) 구조로 파악하여 풀이하였다. 이는 문장의 구조와 사상체계를 분명히 드러나게 풀이하였으나, 3장과 38장 이외는 시도하지 않았다. 3장은 起(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承(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轉(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結(爲無爲, 則無不治.)로 나누어 풀이하였다.<sup>7)</sup> 그러나 승과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인이 취하는 행동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로 파악해야 하므로 본 논문의 논증 구조 분석에서는 주장으로 보았다. 38장을 대상으로 起(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而有以爲.)-承(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仍之)-轉(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而亂之首也. 前識者, 道之華而愚之始.)-結(是以大丈夫處其厚, 不居其薄, 處其實, 不居其華. 故去彼取此.)로 나누어 풀이하였는데, 기와 승으로 구분한 부분은 상덕, 하덕, 상인, 상의, 상례 등의 작용과 등급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논문의 논증 구조 분석에서는 전제로 보았다.

손동완은 한 장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복합장이라고 부르며, 복합장을 abc형(29장, 57장, 63장, 64장), ac형(23장, 44장, 57장, 72장, 77장), bc형(2장과 22장, 7장과 34장 유사)으로 구분하였다.<sup>8)</sup> abc형으로 되어있는 29장을 보면, a는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 b는 ‘故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強或贏, 或挫或隳.’, c는 ‘是以聖人 去甚, 去奢, 去泰.’로 구분하

7) 김충열(1995), 『노장철학강의』, 예문서원, p. 165.

8) 손동완(1993), 「노자의 구조적 이해—복합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6(1),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p. 292.

고 있다. 여기서 a는 저항·반전사상의 맥락이 흐르고 있고, b는 사물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면이 존재함을 말해주며, c는 성인의 덕을 서술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논증 구조로 분석하는 경우에 abc형으로 되어있는 29장에서 a는 c라는 주장의 이유에 해당하고, b는 a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월희는 『논어』와 『도덕경』의 글쓰기를 비교 분석하여 『도덕경』에서는 『논어』에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논증의 방식이 활용되었다고 하였다.<sup>9)</sup> 초간본을 기준으로 갑·을·병 31개의 장을 대상으로 24개의 장에서는 논증 방식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장에 관해서 논증 방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논증 방식이 복합적으로 구사된 예로 초간 갑본 6장(왕필본 64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왕필본의 64장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초간 갑본 6장은 전제 1(1, 2절) → 예증(3, 4절) → 소결1(5~7절) = 전제 2 → 소결2(8~10절) ⇨ 전체결론Q(11, 12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논증구조로 분석해 볼 때 초간본 갑본 6장에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논증의 ‘근거’에 해당하고, 2개의 주장 ‘是以聖人無執, 古無失’과 ‘聖人欲不…而弗能爲’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각각 ‘爲之者敗之, 執之者失之’와 ‘臨事之紀, 慎終如始, 此無敗事矣’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안성재는 노자의 설득 논리를 변증법<sup>10)</sup>을 이용해서 고찰하였는데, 『도덕경』 81장 중 38개의 장이 논리적 사유 과정의 사례라고 보고, 이를 8가지로 구분하였다.<sup>11)</sup> 13개의 장은 정·반·합 구조로 서양의 귀납

9) 김월희(2007), 「논어와 노자의 글쓰기 분석—논증방식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51, 한국중국어문학회, pp. 11-14.

10) 변증법은 장대년, 유소감 등이 시도하였으나, 각 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劉笑敢(2000), 『노자철학』, 김용섭, 청계, pp. 242-272; 張岱年(1989), 『張岱年文集』, 卷一, 北京, pp. 120-122.

11) 안성재(2010), 「노자(老子)의 “설득논리(說得論理)” 시탐(試探)」, 『중국어 문



적 논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3단 논법을 표방하는 변증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도덕경』에서 쓰인 논리적 사유과정의 사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가지는 1)반-정-합; 1장, 2)합-반; 2장, 3)반-합; 3장, 4)정-합; 34장, 5)정-반-합; 13장, 6)정-합-반; 26장, 7)정-합1-반-합2; 63장, 8)합-정-반; 74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의 『도덕경』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기승전결, 복합장, 논증 방식, 변증법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설득을 위한 협의의 논증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덕경』이 통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와 전제를 바탕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주장하는 논증 구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3. 설득을 위한 논증

#### 3.1. 설득과 논증

논증(argument)은 광의의 논증과 협의의 논증으로 구분된다. 또한, 비형식 논리학 역시 형식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논증에 관심을 두는데, 두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증은 서로 다르다.<sup>12)</sup> 형식 논리학에서 논증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으로, 전제와 결론만 있으면 논증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론(inference)이란 ‘전제( $p$ )’를 근거로 하여 ‘결론( $q$ )’에 도달하는 특

학지』, 제33집, 중국어 문학회, pp. 28-29.

12) 박준호(2004),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범한철학』 34(3), 범한철학회, pp. 155-156.

수한 종류의 사고를 말하며, 전제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의 언어적 표현이 ‘논증’이라는 것이다.<sup>13)</sup>

그러나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논증의 개념은 논리적 함축 또는 추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비어는 “논증이란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이성적으로 수용할만하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 제시하는 일단의 주장”이라고 하였다.<sup>14)</sup> 비형식 논리학자들은 전제와 결론을 갖는 것은 논증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증은 적어도 타인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의 개념을 협의의 논증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협의의 논증’이라는 용어를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 3.2. 윌리엄스 · 콜럼의 논증 모형

윌리엄스 · 콜럼의 모형은 주장(claim), 이유(reason), 근거(evidence), 전제(warrant), 반론수용과 반박(acknowledgments and responses)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주장(claim)은 상대나 청자가 어떠한 제시에 대해서 수용하기를 바라는 논증의 최종 목적지이며, 이유로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 논증의 나머지 구성 요소인 이유, 근거, 반론수용과 반박은 주장 등은 이를 뒷받침 할 뿐이다. 이유(reason)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인데, 근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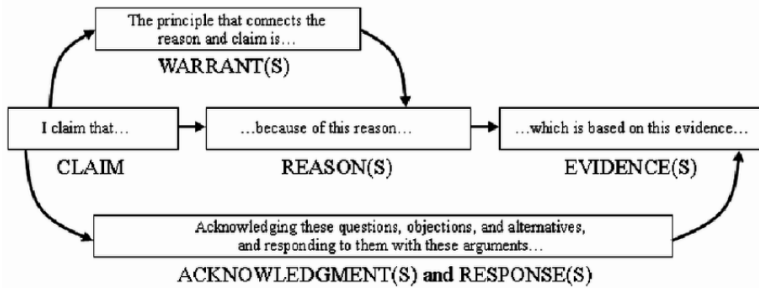
13) 김용규(2007), 『설득의 논리학』, 웅진지식하우스, p. 23.

14) T. Govier (2001).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Thomson Learning, pp. 3-4.

15) M. J. Williams and G. Colomb (2008), 윤영삼 옮김, 『논증의 탄생』, 홍문관, pp. 73-79.

각해낸 것으로 이유는 주장과 근거 사이에 위치한다. 논증에서 이유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로 나눌 수 있다.<sup>16)</sup>

근거(evidence)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연 현상, 역사적 사실 등과 같이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제(warrant)는 이유와 주장을 이어 주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반론수용과 반박(acknowledgement and response)은 논증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논증의 요소이다. 주장은 화자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전제는 이유와 주장, 또는 근거와 이유를 이어 주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다음 그림은 윌리엄스·콜롬의 모형을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윌리엄스·콜롬의 논증모형

16) M. J. Williams and G. Colomb (2008), p. 274.

#### 4. 『도덕경』의 논증 구조에 대한 분석

필자는 『도덕경』이 설득을 위한 글이긴 하지만 대화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논증의 범위는 근거-이유-주장-전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각 장을 분석했다.

##### 4.1. 논증 요소

논증의 구성 요소인 주장(claim)-이유(reason)-근거(evidence)-전제(warrant)<sup>17)</sup>가 『도덕경』에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쓰일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4.1.1. 근거

『도덕경』에서는 27개의 장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별로 정리하면, 일상적인 경험(寵辱若驚, 貴大患若身: 총애는 모욕으로 놀람과 같고, 귀함은 큰 근심으로 몸과 같다),<sup>18)</sup> 도의 특성(道者萬物之奧: 도는 만물의 보금자리),<sup>19)</sup> 자연 현상(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강한 바람은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소낙비는 온종일 내릴 수 없다),<sup>20)</sup>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인식(用兵有言, 吾不敢爲主, 而爲客: 군사를 부리는 데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공격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며)<sup>21)</sup> 등을 포함한다.

---

17) ‘정당화’, ‘보장’, ‘보증’ 또는 ‘고리’로 번역하는 예도 있다.

18) 『道徳經』 13장.

19) 『道徳經』 62장.

20) 『道徳經』 23장.

21) 『道徳經』 69장.

## 4.1.2. 이유

이유는 66장의 내용에서 ‘是以欲上民，必以言下之。欲先民，必以身後之.’(이 때문에 백성의 위에 있고자 하면, 말을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백성의 앞에 있고자 하면, 자신을 반드시 뒤에 놓아야 한다)는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이 잘 낮추기 때문인데, 그래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이라는 우리가 서로 경험할 수 있는 자연 현상에서 생각해낸 것이다. 또한 『도덕경』 26장에서 ‘輕則失本，躁則失君.’(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주인을 잃는다)인데, 이는 ‘重爲輕根，靜爲躁君.’(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이라는 노자의 통찰로부터 생각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0장, 12장, 18장, 35장, 45장에서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4.1.3. 주장

『도덕경』은 통치자에게 이상적인 성인의 행동을 따를 것을 주장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是以聖人’(그래서 성인 은~)의 앞뒤에 근거와 이유, 또는 전제와 이유를 제시하여 ‘是以聖人’ 이후에 성인이 취하는 행태를 제시하고 그의 행동에 따라야 한다는 형식이다. 이러한 주장이 드러나는 장은 2, 3, 7, 12, 22, 26, 27, 29, 47, 58, 63, 64, 70, 71, 72, 73, 77, 78<sup>22)</sup>, 79이다. 또한 ‘是以聖人’의 행태를 취하지 않으나 聖人用之(28), 聖人在天下(49), 聖人不病(71), 聖人不積(81) 등과 같은 형태로 聖인이 사용되었다.

성인 이외에 保此道者(15), 故有道者(24), 侯王(32, 37), 是以侯王(39), 是以大丈夫(38), 故天子(62), 故有道者(31), 古之善爲道者(65), 善

---

22) 是以聖人云

爲士者(68), 王(25), 善者(30), 大道(34), 執大象(35), 道(41), 善攝生者(50), 我(42, 67), 夫代大匠斲者(74) 등이 사용되었다. 다만, 10, 18, 33, 40장에서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4.1.4. 전제

전제는 앞부분에서 ‘보편적인 상황(~라면)’을 진술하고, 뒷부분은 ‘보편적인 결론(언제나 …이다)’을 진술하는 문장으로 구성 된다<sup>23)</sup>. 일반적으로 관습 또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화자나 청자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전제로 삼는데, 『도덕경』에서 전제는 無爲自然<sup>24)</sup>에 관한 통찰로 얻어진 것이다.

#### 4.2. 각 장의 논증 구조 분석

논증 구조 분석은 글의 논리적 흐름과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 장의 문장을 대상으로 주장, 이유, 근거, 전제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도덕경』 81장 중에 근거, 이유, 주장, 전제의 4개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장은 9개인데, 그 배열을 나누어 정리하면, 근거-이유-주장-전제는 5개 장, 이유-근거-주장-전제는 3개 장, 근거-주장-이유-전제는 1개의 장으로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를 고려할 경우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유, 주장, 전제의 3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장은 51개인데, 전제-이유-주장은 30개의 장, 전제-주장-이유는 12개의 장, 주장-이유-

---

23) M. J. Williams and G. Colomb (2008), pp. 257-261.

24) 劉笑敢에 의하면 ‘자연’은 노자가 존송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무위’는 이 가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劉笑敢(2000), 김용섭 옮김, 『노자철학』, 청계, p. 17).

전제는 3개의 장, 주장-전제-이유는 2개의 장, 이유-주장-전제는 1개의 장, 이유-전제-주장은 1개의 장이며, 전제-이유①-주장①-이유②-주장②는 1개의 장, 이유①-주장①-이유②-주장②-전제는 1개의 장으로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까지를 고려할 경우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근거, 이유, 주장의 3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장은 15개의 장인데 배열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거-이유-주장은 10개의 장, 이유-근거-주장은 2개의 장, 근거-이유①-주장①-이유②-주장②는 1개의 장, 근거①-이유①- 근거②-이유②-근거③-이유③-주장은 1개의 장,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까지를 고려할 경우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장은 전제-주장은 3개의 장, 근거-이유는 1개의 장, 이유-전제는 1개의 장이며, 전제만으로 구성된 장도 2개의 장이 있다. 다음의 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논증 구조 유형별 해당 장

구분		해당 장	비고 (해당 장 수)
1	근거-이유-주장-전제 (5)	07, 08, 50, 62, 66	근거, 이유, 주장, 전제 (9)
2	이유-근거-주장-전제 (3)	23, 30, 43	
3	근거-주장-이유-전제 (1)	31	
4	전제-이유-주장 (32)	01, 05, 06, 09, 13, 14, 17, 19, 20, 25, 27, 28, 32, 34, 38, 42, 44, 46, 47, 48, 49, 51, 52, 55, 56, 57, 58, 59, 61, 71, 72, 77	이유, 주장, 전제 (52)
5	전제-주장-이유 (11)	03, 21, 22, 26, 37, 39, 54, 67, 79, 80, 81	
6	주장-이유-전제 (3)	24, 65, 68	
7	주장-전제-이유 (2)	35, 60	

구분		해당 장	비고 (해당 장 수)
8	이유-주장-전제 (1)	73	
9	이유-전제-주장 (1)	41	
10	전제 이유①-주장① 이유②-주장② (1)	04	
11	이유①-주장① 이유②-주장② 전제 (1)	63	
12	근거-이유-주장 (9)	13, 15, 16, 36, 69, 70, 74, 76, <b>78</b>	
13	이유-근거-주장 (2)	02, 29	근거, 이유, 주장 (14)
14	주장-이유-근거 (1)	53	
15	근거 이유①-주장① 이유②-주장② (1)	64	
16	근거①-이유① 근거②-이유② 근거③-이유③ 주장 (1)	75	
17	전제-주장 (3)	10, <b>12</b> , 45	전제, 주장 (3)
18	근거-이유 (1)	11	근거, 이유 (1)
19	이유-전제 (1)	40	이유, 전제 (1)
20	전제 (2)	18, 33	전제 (2)



81장을 논증 구조로 분석한 결과, 구성 요소로 구분하는 경우에 7개 유형, 구성요소의 배열 순서까지 고려하여 구분하는 경우 20개 유형이 있다. 논증의 구성 요소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81장 모두에 대해 논증 구조의 분석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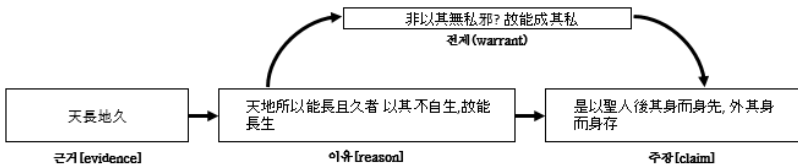
#### 4.3. 논증 구조의 유형별 논증 방식

논증 구조의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7장, 72장, 3장, 78장 등 4개의 장에 관한 논증 분석 결과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12장을 대상으로 논증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81장을 대상으로 논증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4.3.1. 근거-이유-주장-전제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sup>25)</sup>

이 장에서 논증 요소는 근거, 이유, 주장, 전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도덕경』 7장의 논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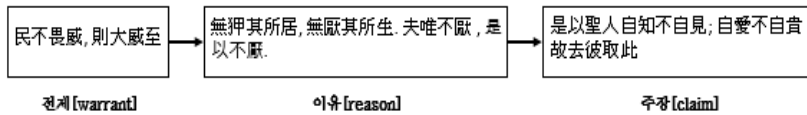
25) 『道德經』 7장.

모형에 제시된 문장을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天長地久’(하늘과 땅은 길고 오래간다)라는 자연 현상을 근거로 하여,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지만, 자신은 앞서고,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자신은 보존된다)라고 성인의 행동과 결과를 내세워 독자는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된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이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이유와 주장을 연결하게 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전제이다.

#### 4.3.2. 전제-이유-주장

民不畏威, 則大威至.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夫唯不厭, 是以不厭. 是以聖人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 故去彼取此.<sup>26)</sup>

이 장에서 논증 요소는 전제, 이유, 주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도덕경』 72장의 논증 구조

보편적인 상황과 추론인 ‘民不畏威, 則大威至’(백성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친다)라는 전제를 내세워, 그 전제로부터

26) 『道徳經』 72장.

‘無狎其所居，無厭其所生.’(거주하는 곳을 억누르지 않아야, 사는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도출한 것이다. 그 이유로부터 ‘是以不厭。是以聖人自知不自見，自愛不自貴.’(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알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아끼지만,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성인을 본받아야 하는 통치자는 ‘故去彼取此’(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야 한다)<sup>27)</sup>라는 것이다.

‘無狎其所居，無厭其所生’은 일반적으로 ‘백성이 사는 곳을 억누르지 말고, 그들의 삶을 핍박하지 마라.’<sup>28)</sup>라고 풀이하는데, 이때 ‘厭’은 ‘누를 염’의 의미로 풀이하고,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동일하게 명령문으로 풀이하면 앞뒤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고, 또한 조언 또는 주장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전제하에서 의미가 다른 두 가지의 주장이 제시되어 주장에 대한 이유가 없게 된다. 때문에 이 문장에서 ‘厭’은 ‘누를 염’의 의미가 아니라 ‘싫어할 염’으로 풀이해야 하고,<sup>29)</sup> ‘無狎其所居’(백성이 사는 곳을 업신여기지 않아야)는 원인, ‘無厭其所生’(백성이 사는 곳을 싫어(厭)하지 않는다)은 결과로 풀이해야 한다.

81장에서 夫唯 … 是以는 72장 외에도 2, 59, 70, 71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夫唯 뒤에는 원인, 是以 뒤에는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夫唯

27) ‘故去彼取此’는 『도덕경』에서 12장, 38장, 72장에 걸쳐 3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라고 풀이한다. 그런데 ‘去彼取此’의 주어가 聖人이라면 같은 의미의 문장이 중복된다. 따라서 ‘去彼取此’의 주어는 노자가 설득하려고 했던 대상(통치자)이 될 것이다. 따라서 ‘故去彼取此’는 명령문으로 설득의 대상도 성인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28) 김용옥은 ‘치자는 백성이 사는 곳을 들들 볶지 마라! 치자는 백성이 사는 것을 직접 느끼지 않게 하라!’ 김용옥(2020), 『노자가 옳았다』, 통나무, p. 443. 이석명은 ‘백성들의 터전을 좁게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압박하지 말라.’ 이석명(2020), 『도덕경』, 민음사, p. 635. 최진석은 ‘그들의 거처를 핍박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말라.’로 번역하였다.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p.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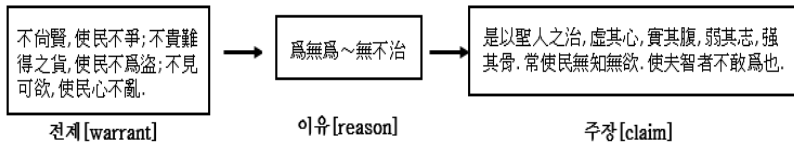
29) 高亨(1943), 『老子正詁』, 中國書店影印, p. 142.

앞에는 夫唯 뒤에 나오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 된다<sup>30)</sup>. 따라서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의 의미는 ‘夫唯不厭, 是以不厭.’의 내용과 같아야 하므로 ‘거주하는 곳을 억누르지 않아야, 사는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풀이해야 한다. 이처럼 풀이하면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백성이 거주하는 곳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백성이 사는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은 이 장에서 주장에 해당하는 ‘是以聖人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알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아끼지만,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야 한다)의 이유가 된다.

### 4.3.3. 전제-주장-이유

不尚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sup>31)</sup>

이 장에서 논증 요소는 전제, 주장,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유가 주장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도덕경』 3장의 논증 구조

30) 『道德經』 2장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59장 治人事天莫若嗇, 夫唯嗇, 是以早服, 70장 天下莫能知,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71장 不知知病, 夫唯病病, 是以不病.

31) 『道德經』 3장.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不尙賢, 使民不爭<sup>32)</sup>은 ‘잘난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이 평서문, 또는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하라.’와 같이 명령문으로 해석한다. 이를 논증 구조로 분석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는 주장에 해당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爲無爲, 則無不治.’이며, 그 이유는 ‘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이라는 전제에서 끌어낸 것이다. 전제는 만약 ‘不尙賢(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不貴難得之貨(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不見可欲(욕심부릴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하면, 언제나 ‘使民不爭(백성이 다투지 않고), 使民不爲盜(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고), 使民心不亂.(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로부터 ‘爲無爲, 則無不治’(무위로 행하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도출한 것으로, ‘不尙賢, 不貴難得之貨, 不見可欲’는 ‘爲無爲’를, ‘使民不爭, 使民不爲盜, 使民心不亂’는 ‘則無不治’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장의 주장은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되 배를 부르게 해주고, 의지를 약하게 하되 뼈를 굳세게 해준다. 항상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없게 하며, 벼슬아치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하여 ‘爲無爲’(무위로 행하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不尙賢, 使民不爭’은 ‘잘난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라고 풀이하며, 이 문장은 평서문으로 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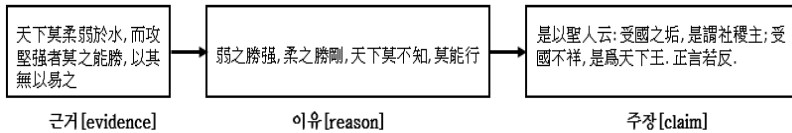
32) 김용옥은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지니.’(김용옥(2020), p. 125), 이석명은 ‘잘난 사람을 높이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이석명(2020), p. 64), 최진석은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최진석(2001), p. 51)라고 번역하였다.

한다.

#### 4.3.4. 근거-이유-주장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以其無以易之。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是以聖人云：受國之垢，是謂社稷主；受國不祥，是為天下王。正言若反。<sup>33)</sup>

이 장에서 논증 요소는 근거, 이유, 주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도덕경』 78장의 논증 구조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其無以易之.’(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일정한 형체가 없어 형체를 바꾸기 때문이다)<sup>34)</sup>라는 자연 현상을 근거로 내세워, 그 근거로부터 저자가 머릿속에서 ‘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

33) 『道德經』 7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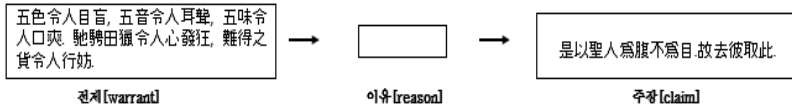
34) ‘以其無以易之’에 관해서 김용옥은 ‘이러한 물의 기능을 대신할 게 없는 것이다.’(김용옥(2020), p. 475), 이석명은 ‘아무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석명(2020), p. 673), 최진석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치를 가버이 보아서는 안 된다.’(최진석(2001), p. 527)와 같이 역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번역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이종상(2012), 『『도덕경』 78장의 번역에 관한 일고』, 『번역학 연구』, vol 13, no. 2, 한국번역학회, pp. 217~222).

상 사람들이 모르지 않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로서 생각해 낸 것이다. 또한, 이유를 바탕으로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爲天下王. 正言若反.’ (그래서 성인은 나라의 오욕을 받아들인 자를 나라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 자를 세상의 왕이라 한다는 것이다. 바른말이 마치 반대로 하는 말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4.3.5. 전제-주장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田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sup>35)</sup>

이 장에서 논증 요소는 전제와 주장으로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도덕경』 12장의 논증 구조

논증의 구성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이처럼 논증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장은 12장을 포함하여 7개의 장이 있다. 논증에서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구성 요소를 찾아 제시하는 것을 논증 재구성이라 하는데, 12장을 대상으로 논증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 令人心發狂, 難得之貨 令人行妨.’(다섯 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35) 『道德經』 12장.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是以聖人爲腹 不爲目. 故去彼 取此.’(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12장에서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증의 재구성’을 통해 암묵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논증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암묵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장의 목적을 살펴보면, 하상공은 12장의 제목을 ‘檢欲’이라고 하여 ‘욕망을 단속함’이라고 주석하였듯이, 감각적 욕망을 지나치게 좇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전제는 ‘우리가 감각적 즐거움과 외면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탐닉했을 때 나타나는 병폐’로 볼 수 있고, 주장은 ‘성인은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위하고, 외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주장의 이유는 ‘욕망을 추구하면 인간의 본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도덕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논증 구조 형식을 4개의 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1개의 장을 대상으로 논증을 재구성하였는데, 논증 구조 분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경우에 각 장에서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4. 논증 구조 분석의 의의

13장(초간을본 4장)에 대해 일정한 방법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했던 김월희(2007), 안성재(2010)의 분석과 이 논문의 논증 구조의 분



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도덕경』 13장 분석 기준별 비교

원문	연구자	김월회 (2007)	안성재 (2010)	이 논문
	분석	논증 방식	변증법	논증 구조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sup>36)</sup>		전제	-	전제
何謂寵辱若驚?	논증 <sup>37)</sup>	자문①	-	이유
寵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풀이①		
是謂寵辱若驚.		소결①		
何謂貴大患若身?		자문②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풀이②		
及吾無身, 吾有何患?	소결②	(반)		
故貴以身爲天下, 若可寄天下; 愛以身爲天下, 若可託天下.		결론	(합)	주장

김월회는 전제-논증-결론으로 나누었으며, 논증은 2개씩의 자문, 풀이, 소결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sup>38)</sup> 여기서 전제는 다른 명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근거가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써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제와 결론은 논증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므로 논증 분석에서 논증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36) 일반적으로 ‘寵辱若驚, 貴大患若身.’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寵’은 주어고, ‘辱과 若驚’은 연동식 복합서술어로 ‘寵辱’과 ‘若驚’ 사이는 쉼표(.)를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貴’는 주어이고, ‘大患’, ‘若身’은 연동식 복합서술어로 ‘大患’과 ‘若身’사이의 쉼표(.)를 사용해야 한다(管敏義, 『高級漢文解釋法』,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1994), 창비, p. 68). 또한 ‘寵辱, 若驚’과 ‘貴大患, 若身’의 문장에서 쉼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문장 사이는 세미콜론(; )을 사용해야 한다(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같은 책, p. 98).

37) 논증은 논거를 전제, 가중 명제를 결론으로 하는 추론 형식을 취하나 결론이 이미 주어진다는 점에서 추론과 다르다.

38) 김월회(2007), p. 12.

않으며, 논증에서 자문-풀이-소결은 논증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안성재는 이 장을 3단 논법을 표방하는 변증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보았다.<sup>39)</sup>正是 ‘내게 큰 화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기 때문이다.’, 反은 ‘이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화가 있겠는가?’, 합(合)은 ‘그러므로 귀히 여김은 자신을 돌보듯 천하를 귀히 여기는 것이 되니,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우러러 섬김은 자신을 돌보듯 천하를 사랑하는 것이니,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장의 논증 구성 요소를 ‘寵辱, 若驚, 貴大患, 若身.’은 근거, ‘何謂寵辱若驚? 寵 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若驚. 何謂貴大患若身?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은 이유, ‘故貴以身爲天下, 若可寄天下, 愛以身爲天下, 若可託天下’는 주장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장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유용한지에 관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안성재는 ‘寵辱若驚, 貴大患若身.’을 ‘충애함과 모욕에 마치 놀란 듯 하는 것은, 자신을 중시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는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은 ‘충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란 듯이 대하고,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하라<sup>40)</sup>.’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寵辱若驚’은 어느 정도 뜻이 통하나 ‘貴大患若身’을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

39) 안성재(2010), pp. 34-36.

40) 안성재(2010), p. 109. 이에 관해 최진석은 ‘충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라듯이 하라.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하라(최진석, 앞의 책, 111쪽)’, 이석명은 ‘충애나 모욕이나 깜짝 놀란 듯이 대하고 큰 근심을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이석명, 앞의 책, p. 156)’, 김용옥은 ‘충애를 받으나 욕을 당하거나 다 같이 놀란 것같이 하라.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하라(김용옥, 앞의 책, p. 185)’라고 번역하였다.

과 같이하라.’에서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또한 ‘寵辱’을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로 번역한다면, ‘貴大患’은 ‘귀함을 받거나 대환을 당하거나’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증 구조 분석을 통해서 풀이하면 ‘寵辱若驚…大患若身’을 근거로 파악하면 ‘寵辱若驚, 貴大患若身.’은 명령문이 될 수 없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근거이다. 이렇게 보면, ‘총애는 모욕으로 놀람과 같고, 귀함은 큰 근심으로 몸과 같다.’라고 풀이 해야 한다. 또한, 寵이 辱인 이유는 ‘寵爲下’, 즉 寵이 下로 변하기 때문이며, 貴가 大患인 이유는 몸이 있으므로 大患이 있듯이 貴가 있으므로 大患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음의 형태는 寵辱과 貴大患이 같지만, 그 답변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 문장에 관해서 오진탁은 『감산의 노자풀이』에서 “뜻밖의 총애는 곧 욕됨으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귀한 벼슬은 커다란 걱정거리로 흡사 가기의 몸과 같다.”와 같이 유사하게 번역하였다.<sup>41)</sup> 위의 예시에서 분석의 목적과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논증 구조 분석이 논리적 해석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장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풀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풀이한 13장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총애는 모욕으로 놀람과 같고, 귀함은 큰 근심으로 몸과 같다.

(이유)왜 총애는 모욕으로 놀람과 같다고 하는가? 총애는, 하찮은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얻어도 놀람과 같고, 잃어도 놀람과 같은데, 이를 일러 총애는 모욕으로 놀람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귀함은 큰 근심으로 몸과 같다고 하는가? 우리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이 없다면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주장)그러므로 자기 몸으로 천하를 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천

41) 愍山(1990), 오진탁 옮김, 『감산의 노자풀이』, 서광사, p. 51.

하를 위임할 수 있고, 자기의 몸으로 천하를 위하는 것을 좋아하면 천하를 의탁할 수 있다.

## 5. 결론

『도덕경』을 집필한 노자는 백성을 독자로 삼지 않고, 『도덕경』을 읽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즉 통치자를 겨냥하여 그를 설득하고자 저술하였다. 노자가 통치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덕경』을 썼다면, 설득을 위한 논증 형식을 사용하여 책을 집필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 논증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각 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콜럼의 논증 모형을 적용하여 『도덕경』 81장 전체의 논증구조를 분석하였다.

『도덕경』 81장 중에 근거-이유-주장-전제와 같이 4개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장은 9개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를 고려할 경우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유-주장-전제와 같이 3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장은 51개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8가지 유형이 있다. 근거-이유-주장으로 구성된 부분은 15개의 장인데,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까지 고려하면 5가지가 있다.

또한, 하나의 전제에 2개씩의 이유와 주장을 나타내는 장도 2개가 있고, 하나의 근거에 2개씩의 이유와 주장을 나타내는 장도 1개가 있다. 3개의 근거와 3개의 이유에 1개의 주장이 제시된 장도 1개가 있고, 기타 4개의 유형에 7개의 장이 있다.

또한, 논증에 의한 『도덕경』의 해석 결과와 기존의 분석 방법인 논증 방식, 변증법 등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 서로 공통되는 13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른 분석 방법보다 논증 구조의 분석 방법이 『도덕경』

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각 장에서 문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 그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부록: 각 장의 논증 구성 요소

장	장의 시작	장의 구성	근거 (Evidence)	이유 (Reason)	주장 (Claim)	전제 (Warrant)
1	道可	W-R-C	-	故常無欲…以觀其微	此兩者同…衆妙之門	道可道…萬物之母
2	天下	R-E-C-W	故有無相…前後相隨	天下皆知…斯不善已	是以聖人…成而不居	夫唯弗居…是以不去
3	不尙	W-C-R	-	爲無爲…無不治	是以聖人…不敢爲也	不尙賢使…民心不亂
4	道冲	W-R-C	-	淵兮…萬物之宗	挫其銳…同其塵	道冲而…或不盈
		W-R-C	-	湛兮…似或存	吾不知誰…象帝之先	
5	天地	W-R-C	-	天地之間…動而愈出	多言數窮…不如守中	天地不仁…姓爲芻狗
6	谷神	W-R-C	-	玄牝之門…謂天地根	緜緜若存…用之不勤	谷神不死…是謂玄牝
7	天長	E-R-C-W	天長地久	天地所以…故能長生	是以聖人…能成其私	非以其無…能成其私
8	上善	E-R-C-W	上善若水	水善利萬…故幾於道	居善地…動善時	夫唯不爭…故無尤
9	持而	W-R-C	-	富貴而驕…自遺其咎	功遂身退…天之道	持而盈之…莫之能守
10	載營	W-C	-	-	生之畜之…是謂玄德	載營魄抱…能無爲乎
11	三十	E-R	三十輻共…有室之用	故有之以…之以爲用	-	-
12	五色	W-C	-	-	是以聖人…去彼取此	五色令人…令人行妨
13	寵辱	W-R-C	-	何謂寵辱…吾有何患	故貴以身…可託天下	寵辱若驚…大患若身
14	視之	W-R-C	-	其上不皦…不見其後	執古之道…是謂道紀	視之不見…混而爲一
15	故之	E-R-C	古之善爲…深不可識	夫唯不可…其若濁	孰能濁以…蔽不新成	-
16	致虛	E-R-C	致虛極…吾以觀復	夫物芸芸…妄作, 凶	知常容…沒身不殆	-
17	太上	W-R-C	-	信不足焉…有不信焉	悠兮…謂我自然	太上知知…其次侮之
18	大道	W	-	-	-	大道廢…有忠臣
19	絕聖	W-R-C	-	此三者以爲文不足	故令有所…少私寡欲	絕聖棄智…盜賊無有
20	絕學	W-R-C	-	人之所畏…不可不畏	荒兮其未…而貴食母	絕學無憂…相去若何
21	孔德	W-C-R	-	吾何以知…以此	自古及今…以閱衆甫	孔德之容…其中有信
22	曲則	W-C-R	-	古之所謂…全而歸之	是以聖人…能與之爭	曲則全…多則惑
23	希言	R-E-C-W	故飄風不…況於人乎	希言自然	故從事於…亦樂得之	信不足焉…有不信焉
24	企者	W-R-C	-	其在道也…餘食贅行	物或惡之…道者不處	企者不立…矜者不長
25	有物	W-R-C	-	故道大…居其一焉	人法地…道法自然	有物混成…遠曰反
26	重爲	W-C-R	-	輕則失本…躁則失君	是以聖人…身輕天下	重爲輕根…靜爲躁君
27	善行	W-C-R	-	故善人者…是謂要妙	是以聖人…是謂襲明	善行無…不可解
28	知其	W-R-C	-	樸散則爲…則爲官長	故大制不割	知其雄…復歸於樸
29	將欲	R-E-C	故物或行…或挫或隳	將欲取天…執者失之	是以聖人…去奢去泰	-
30	以道	R-E-C-W	以道佐人…其事好還	師之所處…必有凶年	善有果而…果而勿強	物壯則老…不道早已

부록: 각 장의 논증 구성 요소(계속)

장	章의 시작	장의 구성	근거 (Evidence)	이유 (Reason)	주장 (Claim)	전제 (Warrant)
31	夫佳	E-C-R-W	君子居則…於天下矣	吉事尙左…喪禮處之	夫佳兵者…道者不處	殺人之衆…喪禮處之
32	道常	W-C-R	-	始制有名…之於江海	侯王若能…令而自均	道常無名…莫能臣也
33	知人	W	-	-	-	知人者智…不亡者壽
34	大道	W-R-C	-	萬物恃之…可名爲大	以其終不…能成其大	大道汎兮…而不爲主
35	執大	C-W-R	-	視之不足…之不足既	執大象…安平太	樂與餌…乎其無味
36	將欲	E-R-C	將欲歛之…是謂微明	柔弱勝剛強	魚不可脫…可以示人	-
37	道常	W-C-R	-	不欲以靜…下將自定	侯王若能…亦將無欲	道常無爲…而無不爲
38	上德	W-R-C	-	故失道而…而愚之始	是以大丈…去彼取此	上德不德…臂而仍之
39	昔之	W-C-R	-	故致數輿…珞珞如石	是以侯王…本邪非乎	昔之得一…以下爲基
40	反者	R-W	-	反者道之…者道之用	-	天下萬物…有生於無
41	上士	R-W-C	-	上士聞道…足以爲道	道隱無名…善貸且成	故建言有…大象無形
42	道生	W-R-C	-	人之所惡…益之而損	人之所教…以爲教父	道生一…氣以爲和
43	天下	R-E-C-W	無有入…無間	天下之至…下之至堅	吾是以…爲之有益	不言之教…希及之
44	名與	W-R-C	-	是故甚愛…藏必厚亡	知足不辱…可以長久	名與身孰…與亡孰病
45	大成	W-C	-	-	躁勝寒靜…爲天下正	大成若缺…大辯若訥
46	天下	W-R-C	-	禍莫大於…大於欲得	故知足之…常足矣	天下有道…馬生於郊
47	不出	W-R-C	-	其出彌遠…其知彌少	是以聖人…不爲而成	不出戶…見天道
48	爲學	W-R-C	-	無爲而…無不爲	取天下常…以取天下	爲學日益…至於無爲
49	聖人	W-R-C	-	善者吾善…德信	聖人在天…人皆孩之	聖人無常…姓心爲心
50	出生	E-R-C-W	出生入死	生之徒十…生之厚	蓋聞善攝…所容其刃	夫何故…其無死地
51	道生	W-C-R	-	故道生之…是謂玄德	是以萬物…而常自然	道生之…勢成之
52	天下	W-R-C	-	既得其母…沒身不殆	塞其兌…是爲習常	天下有始…爲天下母
53	使我	C-R-E	朝甚除…非道也哉	大道甚夷…而民好徑	使我介然…唯施是畏	-
54	善建	W-C-R	-	吾何以知…以此	故以身觀…下觀天下	善建者不…其德乃普
55	含德	W-R-C	-	蜂虿虺蛇…知常曰明	益生曰祥…不道早已	含德之厚…比於赤子
56	知者	W-R-C	-	塞其兌…是謂玄同	故不可得…爲天下貴	知者不言…言者不知
57	以正	W-R-C	-	吾何以知…盜賊多有	故聖人云…而民自樸	以正治國…事取天下
58	其政	W-R-C	-	禍兮…其日固久	是以聖人…光而不耀	其政悶悶…其民缺缺
59	治人	W-R-C	-	重積德則…可以有國	有國之母…久視之道	治人事天…重積德
60	治大	C-W-R	-	夫兩不相…德交歸焉	治大國…若烹小鮮	以道莅天…亦不傷人

부록: 각 장의 논증 구성 요소(계속)

장	장의 시작	장의 구성	근거 (Evidence)	이유 (Reason)	주장 (Claim)	전제 (Warrant)
61	大國	W-R-C		牝常以靜...或下而取	大國不過...者宜爲下	大國者下...天下之牝
62	道者	E-R-C-W	道者萬物...人之所保	美言可以...何棄之有	故立天子...坐進此道	古之所以...爲天下貴
63	爲無	W-R-C	-	天下難事...必作於細	是以聖人...能成其大	爲無爲...大於其細
		W-R-C		夫輕諾必...必多難	是以聖人...終無難矣	
64	其安	E-R-C	其安易持...始於足下	爲者敗之...執者失之	是以聖人...執故無失	-
		E-R-C		民之從事...則無敗事	是以聖人...而不敢爲	-
65	古之	C-R-W	-	民之難治...是謂玄德	古之善爲...將以愚之	玄德深矣...至大順
66	江海	E-C-R-W	江海所以...爲百谷王	是以聖人...能與之爭	是以欲上...以身後之	以其不爭...能與之爭
67	天下	W-C-R	-	我有三寶...能成器長	今舍慈且...以慈衛之	天下皆謂...其細也夫
68	善爲	C-R-W	-	是謂不爭...是謂配天	善爲士者...爲之下	古之極
69	用兵	E-R-C	用兵有言...寸而退尺	是謂行無...執無兵	禍莫大於...者勝矣	-
70	吾言	E-R-C	吾言甚...莫能行	言有宗...則我者貴	是以聖人...被褐懷玉	-
71	知不	W-R-C	-	夫唯病病...是以不病	聖人不病...是以不病	知不知,上...不知知,病
72	民不	W-R-C	-	無狎其所...是以不厭	是以聖人...去彼取此	民不畏威...則大威至
73	勇於	R-C-W	-	勇於敢則...孰知其故	是以聖人...猶難之	天之道...疎而不失
74	民不	E-R-C	民不畏死...以死懼之	若使民常...孰敢	常有司殺...傷其手矣	-
75	民之	E(R)-C	民之饑(E)...食稅之多(R)...是以輕死		唯無以...賢於貴生	-
76	人之	E-R-C	人之生也...死也枯槁	故堅強者...生之徒	是以兵強...柔弱處上	-
77	天之	W-R-C	-	天之道...唯有道者	是以聖人...不欲見賢	天之道足...者補之
78	天下	E-R-C	天下莫柔...無以易之	弱之勝強...莫能行	是以聖人...正言若反	-
79	和大	W-C-R	-	有德司契...常與善人	是以聖人...不責於人	和大怨...可以爲善
80	小國	W-C-R	-	甘其食...不相往來	使有什伯...繩而用之	小國寡民
81	信言	W-C-R	-	天之道...爲而不爭	聖人不積...人已愈多	信言不美...博者不知



## 참고문헌

### 【자 료】

M. J. Williams and G. Colomb (2008), 윤영삼 옮김, 『논증의 탄생』, 홍문관.  
樸宇烈(1992), 『王弼集校釋』, 臺北: 華正書局.

### 【논 저】

- 김상철(2001), 『노자 제대로 읽기』, 씨앗을 뿌리는 사람.  
김시천(2012), 「노자와 제왕의 도—노자의 ‘전설’과 『노자』 텍스트에 대한 재검토」, 『동양철학연구』 69, 동양철학연구회.  
김용규(2007), 『설득의 논리학』, 웅진지식하우스.  
김용옥(2020), 『노자가 옳았다』, 통나무.  
김월희(2007), 「논어와 노자의 글쓰기 분석—논증방식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51, 한국중국어문학회.  
김충열(1995), 『노장철학강의』, 예문서원.  
박원재(2004), 「성인과 백성—노자의 수양론의 두 측면」, 『중국철학』 12, 중국철학회.  
박준호(2004),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범한철학』 34(3), 범한철학회.  
손동완(1993), 「노자의 구조적 이해—복합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6(1),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안성재(2010), 「노자(老子)의 “설득논리(說得論理)” 시탐(試探)」, 『중국어 문학기』 33, 중국어 문학회.  
이석명(2020), 『도덕경』, 민음사.  
이종상(2012), 「『도덕경』 78장의 번역에 관한 일고」, 『번역학 연구』 13(2), 한국번역학회.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淸山(1990), 오진탁 옮김, 『감산의 노자풀이』, 서광사.  
管敏義(1994),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옮김, 『高級漢文解釋法』, 창비.  
劉笑敢(2000), 김용섭 옮김, 『노자철학』, 청계.

162 인문논총 제78권 제4호 (2021.11.30.)

高亨(1943), 『老子正詁』, 中國書店影印.

薛惠(1966), 老子集解及其他一種, 臺灣商務印書館.

張岱年(1989), 『張岱年文集』卷一, 北京.

T. Govier (1999),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원고 접수일: 2021년 10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3일

ABSTRACT

---

Analysis of the Argument Structure of *Tao Te Ching*:  
Focusing on Williams & Colomb's Model

Lee, Jong-Sang · Lee, Dong-A\*

Lao-tzu's core philosophy has been known as the rule of the king since the first generation of scholars. Later, by several scholars recognized that *Tao Te Ching* was a text for rulers; the readers of *Tao Te Ching* were the rulers, and the *Tao Te Ching* was said to have been written to persuade the ruler. If the purpose of writing *Tao Te Ching* is to persuade the ruler, it can be inferred that it would have been based on a grounded claim, that is, an argument. Therefore, Lao-tzu's writing is not simply a sequence, but it can be proposed that all chapters have a certain argumentation system.

In this article, *Tao Te Ching* was viewed as writing for persuasion, that is, argument accompanied by evidence, and the way in which *Tao Te Ching* was constructed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rgument. The structure of the argument used at this time adopted the Williams & Colomb model.

Among 81 chapters of *Tao Te Ching*, there are 9 chapters that contain all four elements, such as evidence-reason-claim-warrant, and when con-

---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h. D., Department of Orient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idering the order of arrangement of elements, there are three types. There are 49 chapter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such as reason-claim-warrant, and there are 8 types when considering the order of arrangement of components. There are 16 chapters composed of evidence-reason-claim, and there are 5 when considering the order of arrangement of components. In addition, there are two chapters representing two reasons and arguments for one warrant, and one chapter representing two reasons and arguments for each reason. There is one chapter with one claim for three evidences and three reasons, and seven for the other five types.

In examining the argument structures considered to be the most widely used in *Tao Te Ching*, five chapters for each type were examined,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gument structure, it was possible to more clearly interpret the problem compared to the previous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ao Te Ching* by argumentation and analysis results using existing analysis methods such as argumentation method and rhetoric method were compared for Chapters 13, in which both were commonly present. As a result, the analysis frame of the argument structure adopted in this article is more effective for understanding *Tao Te Ching*, compared to other analytical frames.